

新安船에서 發見된 中國 陶瓷器의 組成 研究

—中國, 日本, 東南아시아, 西아시아에서 出土된
元代 陶瓷器와의 比較를 통해—

모리 다쓰야[森達也]

I. 머리말

II. 新安船 發見 陶瓷器의 產地

III. 新安船 發見 陶瓷器의 年代

IV. 新安船 發見 陶瓷器와 杭州, 寧波, 日本 出土 元代 中國 陶瓷器 比較

V. 新安船 發見 陶瓷器와 東南아시아, 西아시아 出土 元代 中國 陶瓷器 比較

VI. 맺음말

日本 沖縄県立芸術大学 美術工芸学部 教授

주요논저:

『宋・元代龍泉窯青磁の編年的研究』(2000), 『汝窯與南宋官窯—燒造技術和
器種的比較』(2012), 『中国青瓷の研究—編年と流通—』(2015)

신안선에서는 2만 점이 넘는 중국 도자를 비롯해 7 점의 고려 청자와 일본 도자가 몇 점 발견되었다. 중국 도자의 절반 정도는 浙江省 龍泉窯 靑瓷, 3분의 1은 江西省 景德鎮窯 자기지만, 그 밖에도 북쪽 河北省으로부터 남쪽 廣東省에 이르기까지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신안선은 중국 닙보를 출항해 하카타로 향하던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이 배에 중국 각지 다양한 산지의 제품이 실렸던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출항지인 닙보와 그 부근인 항저우의 유적, 목적지였던 하카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각지의 유적, 동남아 각지의 유적,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유적 등에서 출토된 元代 중국 도자의 산지 구성과 기종 구성을 비교 검토해 신안선에 실려 일본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도자기의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구성은 그 출발항인 닙보와 그 부근에 위치한 대도시 항저우에서 유통되던 도자기의 구성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같은 시대에 동남아 및 서아시아로 건너간 중국 도자의 구성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자기 구성의 비교를 바탕으로 당시 일본인이 단지 器物로서 중국 도자를 수입했던 것이 아니라 도자기의 배경에 깔려있는 중국 문화까지 수입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제어: 신안선, 중국도자, 일본-원 무역, 닙보, 하카타

新安船에서 發見된 中國 陶瓷器의 組成 研究

—中國, 日本, 東南아시아, 西아시아에서 出土된
元代 陶瓷器와의 比較를 통해—

모리 다쓰야[森達也]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미술공예학부 교수

I. 머리말

신안선에서는 2만여 점의 중국 도자기 외에 7점의 고려 청자, 2점의 일본 세토요[瀬戸窯] 도자가 발견되었다. 중국 도자기의 절반 이상은 저장 성[浙江省]의 龍泉窯 청자, 5분의 1은 장시 성[江西省]의 景德鎮窯 도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푸젠 성[福建省]의 백자·청자·흑유자, 화베이[華北] 지역의 磁州窯 계열 도자기, 장시 성의 吉州窯 도자기와 贛州七里鎮窯 도자기, 광둥 성[廣東省]의 石灣窯 醬釉 四系罐, 허베이 성[河北省]의 定窯 백자, 장쑤 성[江蘇省] 남부 또는 저장 성 북부의 장유 사계관, 저장 성의 金華鐵店窯, 저장 성 항저우[杭州]의 老虎洞窯 청자 등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도자가 발견되고 있다. 신안선은 원나라 至治3年(1323)에 중국의 닝보[寧波, 당시 명칭은 경원慶元]를 떠나 일본의 하카타[博多]로 향한 무역선으로 추정되는데, 왜 이 선박에 중국 각지의 넓은 지역에 걸친 각종 산지 제품이 실린 것일까? 이 도자기 조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 글에서는 이들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해 출항지였던 닝보와 그 부근 항저우의 유적, 목적지였던 하카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각지의 유적,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유적에서 출토된 원나라 때 중국 도자기 산지 조성이나 器種의 조성을 비교 검토하여 신안선에 실려 일본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도자기의 특성과 그 문화사적 배경을 해명해보고자 한다.

II. 新安船 發見 陶瓷器의 產地

신안선은 한국 서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연해에서 1976년에 발견되었고 같은 해부터

1984년에 걸쳐 11차에 걸친 수중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길이 약 28m, 폭 약 9m의 목조 선박 선체와 도자기 2만여 점, 금속제품 729점, 동전 약 28t, 목제품, 칠기 등 다채로운 유물이 인양되었다.

발견된 ‘至治3年(1323)’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목간과 ‘慶元路’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저울 추로부터 유추해 볼 때 이 배는 1323년에 경원(닝보)을 출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견된 도자기는 원대 중국 도자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도자기는 대부분이 중국 도자기로, 용천요 청자가 2만여 점의 전체 도자기 가운데 약 5분의 3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덕진의 청백자, 백자 등이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푸젠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듯한다,¹ 閩清窯의 白瓷碗·碟² 나 푸젠 복동부 혹은 저장 동남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芒口白瓷碗,³ 建盞,⁴ 南平·茶洋窯의 黑釉碗,⁵ 德化窯 褐釉碗,⁶ 福州·洪塘窯 醬釉小壺(차 용기),⁷ 磁窰窯의 단지나 용기 등 푸젠 각지 다양한 요의 제품과 기종이 존재한다.

그밖에 수량은 많지 않으나 화베이 지역의 자주요 계열 도자기, 허베이 성 정요 백자, 장시 성 길주요와 공주요의 제품, 장쑤 성 宜興窯 또는 저장 성 복부의 褐釉四耳壺, 금화철점촌요 倣鈞瓷, 항저우 노호동요의 원대 청자, 광둥 성 석만요 장유사이호, 고려 청자, 일본 세토요 제품 등이 발견되고 있다 표 1.

1. 용천요

용천요 청자는 보고서 『신안해저유물 종합편』(이하 종합편)의 표 1(pp. 368-370)에 따르면 1983년까지 인양된 도자기 총 18,832점(이 표 아래의 추가 기록에 따르면 1984년에 인양된 도자기는 2,018점이며, 이를 더하면 총 20,850점) 가운데 약 56%인 10,627점이 용천요 청자이다. 이 가운데 南宋 양식 「I-2-①類」으로 보이는 것이 37점, 원 양식의 우량질 및 양질 「I-3-①類」로 보이는 것이 117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 양식의 일반질 「I-3-②類」로

1 보고서에서는 푸젠 도자기라고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2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백자·기타 유물』(2006c), 백자 № 26, 27, 76, 78, 79.

3 위의 책(2006c), 백자 № 41-49.

4 建窯(水吉窯)에서는 남송 말에 건잔의 생산을 종료하고 청백자 생산으로 이행한 점과 신안선에서 발견된 모든 건잔의 내저부에 장기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마찰 흔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안선의 건잔은 골동품 또는 중고품으로 보인다. 문화재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안선 청자·흑유』(2006b), № 38-45.

5 위의 책(2006b), 흑유 № 50.

6 위의 책(2006b), 흑유 № 46-47.

7 위의 책(2006b), 흑유 № 27-30.

보이는 것으로서 10,469점에 달하며, 보고된 전체 도자기(18,832점)의 약 55%를 차지한다. 또한 이 표 1에서는 『종합편』 371페이지의 분류표에 나와 있는 조질 청자「I-3-③類」의 수량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용천요 청자의 숫자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

남송 양식으로 보고된 37점의 용천요 청자에 대해서는 다른 유물과 동일한 원 대 중기에 생산된 것이라는 설과 남송대에 생산된 것이 골동품으로서 실렸을 것이라는 설의 두 가지 설이 나와 있는데, 필자는 남송 양식의 것에 사용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과 거의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중국의 窖藏 출토품에는 신안선의 남송 양식과 같은 粉靑釉 ‘薄胎厚釉[소지가 얇고 유약이 두꺼운 것]’청자가 포함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골동품 또는 중고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보고에서 원 양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 10,600점의 청자 가운데는 瓶, 壺, 荷葉蓋罐(술을 담아두는 그릇) 表 2-27, 水注, 水滴, 香爐, 盤, 碗 表 2-28, 托, 洗[水盤], 鉢, 馬上杯 表 2-29, 花盆,

표 1. 신안선 출수 도자의 생산지별 출토수량

	산지(產地)	수량(數量)	비율(比率)(%)($\times \div$, $18,832 \times 100$)
1	용천요	10,627	56
2	경덕진요	약 4,100	21
3	푸젠	약 1,500	8
4	금화 철점요	1,144	6.1
5	의흥요 또는 저장 북부	967	5.1
6	공주요	82	0.44
7	자주요계	76	0.4
8	석만요	22	0.12
9	노호동요	18	0.1
10	길주요	11	0.06
11	고려 청자	7	0.04
12	일본	4	0.02
13	정요	2	0.01
14	불명	270	1.4
합계		18,832 (신안 『종합편』 표 1의 수치)	

습자, 人形燭台 등 여러 기종이 보이는데, 수량적으로는 대부분이 완·접시 등의 식기이다.

완·접시류는 양질과 일반질의 차가 뚜렷한데, 양질품은 남송 시대 박태후유의 蓮瓣文 완·접시와 마찬가지로, 끝 부분 이외는 전부 유약을 입힌 삼각형 단면의 굽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굽 끝 부분의 유약을 칠하지 않은 露胎 부분의 폭은 남송 말·원 초기 단계보다도 넓다. 외면에는 얇은 연판문이나 정교하고 세밀한 劃花文으로 되어있다.

일반 품질의 대부분은 폭이 넓고 사각형 단면의 높은 굽을 갖고 있는데, 높은 굽 안에 유약이 칠해져 있지 않거나 굽 내부의 유약을 링 모양으로 벗겨내고 있다. 조악한 연판문, 線描 연판문, 획화문 외에 내면 전체로 표현되는 印花文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외측면 口緣 바로 아래에 4~6개 전후의 平行沈線文[줄목문櫛目文]으로 장식한 것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신안선의 완·접시의 대부분은 이 조질품이다. 이들은 남송 시대 용천요 청자의 厚胎薄釉[태토가 두껍고 유약이 얇은 것] 粗製品의 계보를 잇고 있다.

병이나 하엽개관, 대반 등의 대형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 개별적으로 특징을 서술할 수는 없지만 획화문, 인화문, 貼花文으로 많은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릇 형태는 대형화되고 그릇의 두께는 두꺼우며 전체적인 조형은 조악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유약은 두껍게 발리고 녹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다. 대반에서는 완에서 볼 수 있는 굽 안의 링 형태의 유약 벗김 기법을 사용한 것이 많아지는 점이나 구연이 稜花形인 것이 나타나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원대에 선호되던 마상배가 이 시기에 출현하고 있다. 양은 적지만 鐵斑文靑瓷[飛靑瓷]나 素胎貼花文靑瓷가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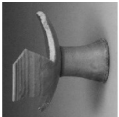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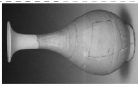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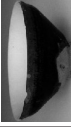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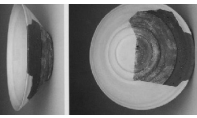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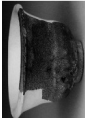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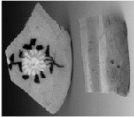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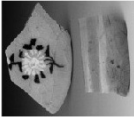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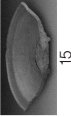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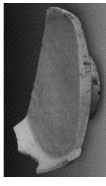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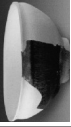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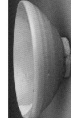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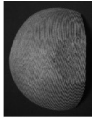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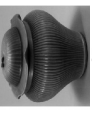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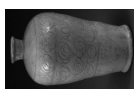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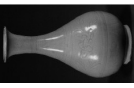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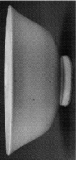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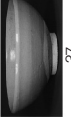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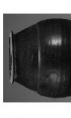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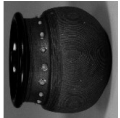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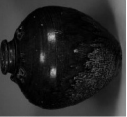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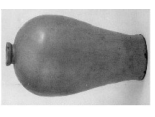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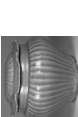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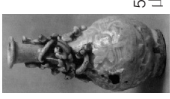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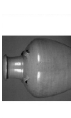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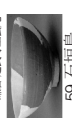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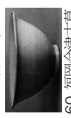












2. 경덕진요

보고서『종합편』의 표 1(pp. 368-370)에서는 1983년까지 인양한 유물 중에 백자가 5,1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1984년에는 183점이 더 인양되었다), 그 가운데 3,717점은 청백자, 1,403점은 백자로 분류되어 있다 표 2-30~32.

청백자로 되어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경덕진요의 제품으로 보이는데, 서술한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일부는 푸젠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경덕진요의 청백자 기종으로는 병, 호, 수주, 수적, 향로, 작은 화병, 완, 접시 등이 있는데, 장식은 획화문이나 인화문·첩화문 등이 다수 사용되었으며, 수량은 적지만 釉裏紅이나 철반문 등도 있다. 향로나 수주·수적·화병 등은 틀로 만들어 낸 것이 많다.

『종합편』표 1의 백자 1,403점 가운데 경덕진의 백자는「Ⅱ-2-⑤」로 분류된 413점으로, 樞府白瓷로 불리는 인화문을 다수 사용한 완이나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釉下彩의 鐵繪로 장식한 제품도 10점 정도 포함되어 있다.

표 2. 원대 중국도자의 조성 비교(항저우 · 닝보 · 신안선 · 일본)

浙江省 龍泉窯	江西省 景德鎮窯	福建省 建寧諸窯	浙江省 金華鐵店窯	江西省 吉州窯	江西省 贛州窯	江蘇省 宜興窯	廣東省 石灣窯	河北省 磁州窯系	高麗 靑瓷
 1  2	 3  4	 5  6  7	 8	 9  10	 11 1-13. 南宋太廟遺跡出土 14. 南宋恭聖仁烈皇后宅遺跡出土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22	 23 15-20, 23-25. 水豐庫出土	 24  25 21, 22, 26. 寧波市採集	 26	 27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종합편』에서 보고된 경덕진요의 제품은 청백자, 백자를 합쳐 4,100여 점이며 전체의 약 21%, 약 5분의 1이다.

3. 푸젠의 각종 요

푸젠 제품으로 가장 많은 것은 구연 끝에 유약이 발리지 않은 芒口白瓷碗으로, 內底部에 蓮花文이나 ‘長命富貴’, ‘玉出崑山’, ‘福祿雙全’, ‘白玉片一’ 등의 글자가 압인되어 있는 것이 있다 표 2-38. 신안 『종합편』 표 1에서는 「Ⅱ-2-① 普通質白瓷」로 분류되어 있으며, 616점이 올라 있다. 망구백자완의 산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지만 푸젠 성의 閩江 이북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저장 성 동남부 지역의 제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푸젠 제품에 포함시켜 두겠다. 일본에서도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의 유적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안쪽 바닥이 인화문으로 되어있는 타입은 적다. 인화문을 가진 타입은 닝보 永豐庫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⁸

『종합편』 표 1에서 「Ⅱ-2-① 粗質白瓷」라고 되어 있는 백자도 상당 부분이 푸젠 제품으로 보인다. 이 타입은 A, B, C의 3타입으로 세분화되는데, A는 外底部 노태 표 2-37, B는 테두리 부분과 외저부 노태, C는 내·외저부 노태라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Ⅱ-2-① A」는 내면에 인화문이나 획화문이 그려진 완이나 접시로, 표 1에서는 80점이 기록되어 있다. 이 타입의 백자완·접시는 푸젠 성의 閩清窯를 중심으로 민강 유역 각지의 요에서 생산되었다 표 2-37.

「Ⅱ-2-① B」는 내면에 雙魚文이나 魚藻文 등의 양각 인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품의 특징으로 보아 푸젠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편』 표 1에서는 270점이 실려 있다.

「Ⅱ-2-① C」는 구연이 직선적으로 비스듬히 벌어지는 단순한 형태의 완·접시로, 잿빛이 도는 유약이 칠해져 있으며, 내·외저부는 노태다. 『신안해저유물 Ⅱ』에서는 「Ⅱ-2-① A」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종합편』 표 1에서는 「Ⅱ-2-① C」로 새 분류가 적용되어 12점이 올라 있다. 連江·浦口窯나 莆田窯 등, 푸젠의 중·북부에서 비슷한 粗製 도자기가 생산되었으나 백자가 아니라 청자 또는 청백자로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용천요에서도 원대에 내·외저부 노태의 조제 청자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타입은 그러한 용천요 청자의 조제품을 푸젠 성에서 모방한 것이다.

2006년의 도록 『신안선』 청자48 〈靑瓷四耳花瓶〉은 푸저우 宦溪窯를 중심으로 한 민강 하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표 2-36, 일본에서는 〈白瓷四耳壺〉로 불리는 타입이며 전국 각지의

⁸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 『永豐庫 元代倉儲遺址發掘報告』(科学出版社, 2013), 컬러판 62-3~6.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신안『종합편』에서「Ⅱ-1-① C 緻密質靑白瓷」의 청백자 주전자로 사진이 실려 있는 수주(『종합편』, p. 455, 그림 90)는 민청요 제품이라는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⁹

푸젠 도자기는 백자 뿐만 아니라 흑유나 갈유 도자기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다.

건잔은『종합편』에서는「Ⅲ-2-① 建窯天目」으로 분류되어 42점(자료편Ⅰ : 11점, 자료편Ⅱ : 4점, 자료편Ⅲ : 16점, 종합편 : 11점)이 기록되어 있다 표 2-33. 대부분의 건잔 내저부에는 차를 만들면서 생긴 마찰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구연에는 금속제 覆輪이 끼워져 있는 것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모두 南宋 시대에 생산된 것이다.

건잔 외에 민강 종류 유역의 차양요에서 생산된 다소 그릇 높이가 낮은 완이나 표 2-34, 덕화요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天目 형태의 완이 있다.

차양요 제품은『종합편』에서「Ⅲ-1-② A 盞」으로 분류되어 69점이 올라 있다 표 2-34. 또한『신안해저유물 자료편Ⅰ』(이하 자료편)에서는「Ⅲ-1-② A 盞」이 73점,『자료편Ⅲ』에서는 80년도에 발견된「Ⅲ-1-② 盞」이 123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문장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아 이것들도 차양요 제품으로 추정되어 합계 265점이 차양요의 흑유완으로 보인다.

덕화요의 천목형 완은 구연 부분이 굴곡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구연 끝부분에 청유나 백유가 칠해진 것이 많다.「Ⅲ-1-① B 盞(黑釉靑口盞)」,「Ⅲ-1-② A 盞(黑釉靑口盞)」,「Ⅲ-1-② B 盞(黑釉曲口盞)」으로 분류되어 있다.『신안해저유물 자료편Ⅰ~Ⅲ, 종합편』에 게재된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Ⅲ-1-① B 盞(黑釉靑口盞)」이 2점,「Ⅲ-1-② A 盞(黑釉靑口盞)」,「Ⅲ-1-② 盞(黑釉曲口盞)」은 각각 1점으로 덕화요일 가능성이 높은 천목형 완은 합계 4점이 된다.

짧은 목의 흑갈유소호는 일본에서는 다이카이 차이레[大海茶入]로서 귀하게 여겨진 타입에 가까운데, 푸저우[福州]의 홍당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표 2-35.『종합편』표 1에서는「Ⅴ-1-① A ㉠ 黑褐釉小壺」188점과「Ⅴ-1-① A ㉡ 黑褐釉小壺」29점 대부분이 이 타입인데, 이 가운데 목 부분이 길게 뻗은 타입도 소수 포함되어 있어 다이카이 차 용기 타입의 홍당요 제품은 200점 전후로 추정된다.

그 외에 흑유나 갈유가 칠해진 대호나 독 가운데에서도 푸젠 제품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Ⅴ-1-② C 褐釉四耳壺」1점과「Ⅴ-1-② D 褐釉大壺」9점은 肩部에 태토빚음 자국이 남아 있다는 특징으로 보아 푸젠 자조요의 제품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푸젠 도자기를 합계하면 약 1,500점이 되며,『종합편』표 1의 총 개수 18,832점의 약 8%가 된다.

9 2015년 7월에 閩清市博物館의 가마터 출토 도자편 전시에서 필자가 확인했다.

4. 금화철점요

신안선에서 발견된 乳濁釉가 칠해진 제품을 『자료편 I~Ⅲ, 종합편』에서는 鈞窯系로 표시하고 있으나, 오늘날 이들 제품은 저장 성의 금화철점요 제품으로 보고 있다 표 2-39. 다만 이러한 유탁유 도자기는 철점요 뿐만 아니라 저장 성 취저우 시[衢州市] 衢縣大川窯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유탁유 도자기 「Ⅳ-1-①」는 신안선에서는 183점이 발견(『종합편』 표 1) 되었으나 그밖에 흑유호 표 2-40 「Ⅴ-1-③ 暗褐釉立壺」 961점이 철점요에서 생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¹⁰ 합계 1,144점이 철점요 제품이 되어, 『종합편』 표 1의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5. 의홍요

갈유나 흑유가 칠해진 소형 雙耳壺, 四耳壺, 短頸壺는 액체 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는 韓瓶으로 불린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한병 가운데 일부 타입은 장쑤 성 남부의 의홍요를 중심으로 저장 성 북부에 걸친 일대에서 생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갈유쌍이호 「Ⅴ-2-① B」 52점 표2-43, 몸체가 짧은 흑갈유사이호 「Ⅴ-2-② A」 48점, 몸체가 긴 흑갈유사이호 「Ⅴ-2-② B」 11점 표2-44, 귀가 없는 단경 흑갈유호 「Ⅴ-2-① A」 856점으로 합계 967점이 된다. 『종합편』 표 1의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의 5.1%를 차지한다.

6. 공주요

구연 아래에 백유로 列点文을 장식한 소호를, 일본에서는 루이자차이레[擂座茶入]라고 부르며 귀하게 다루었다. 장시 성 남부의 칠리진요에서 생산된 것이 알려져 있으며 신안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표 2-42.

내외면에 흑유가 칠해진 타입 「Ⅲ-1-③」 58점과 외면은 노태로 즐목문으로 장식되어 내면에만 흑유(또는 갈유)가 칠해진 타입 「Ⅲ-1-④」 24점이 발견되고 있다. 전자 타입은 길주요 제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주요 제품으로 해 두고자 한다.

합계 82점이 되어 『종합편』 표 1의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의 0.44%를 차지한다.

¹⁰ 가마터에서 필자가 확인.

7. 자주요 계열 도자기

자주요 계열 도자기로는 白地鐵繪, 흑유, 흑유철반문, 갈유 등이 있는데, 기종으로는 호, 병, 세, 완, 잔 등이 있다.

백지철회는 「Ⅳ-2-②」로 분류되어 호, 세 등 7점이 인양되었다 표 2-46, 47. 흑유나 갈유의 이른바 河南天目 계열의 자료는 「Ⅲ-2-② A 素文(오직 흑유만)」 19점, 「Ⅲ-2-② B 구연부 백유」 1점(1978년도 발견), 「Ⅲ-2-② C 鎬文(鐵斑文)」 9점 등 29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하남천목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黑褐釉有蓋小壺 「Ⅴ-1-① B」 6점, 黑褐釉大壺 「Ⅴ-1-② E」 28점, 黑褐釉長胴四耳壺 「Ⅴ-2-② C」 11점 외에 孔雀釉印花鳳凰文盤 「Ⅳ-3」 2점도 자주요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을 합계하면 76점이 되며 『종합편』 표 1의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의 0.4%를 차지한다.

8. 광둥 석만요

일본에서 茶壺로 사랑 받은 둥근 몸체의 갈유사이호의 상당 부분은 광둥 성 석만요[기석요 奇石窯]의 제품으로, 신안선에서는 「Ⅴ-1-② B 四耳壺」로 분류되어 22점이 기록되어 있다 표 2-45. 견부에 ‘清香’, ‘寶’, ‘正寶’ 등의 한자 명문 외에 파스파 문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도 있다.

『종합편』 표 1의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의 0.12%를 차지한다.

9. 항저우 노호동요

신안선에서 「Ⅰ-2-② 官窯式青瓷」로 분류된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항저우 노호동요의 원대 지층에서 출토된 청자와 비슷하며, 18점이 발견되고 있다.

『종합편』 표 1의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의 0.1%를 차지한다.

10. 길주요

길주요 제품으로는 白地鐵繪瓶, 黑釉刻花瓶, 玳皮釉梅瓶, 백자 등이 있다.

신안 『종합편』 표 1(pp. 368-370)과 분류표(p. 371), 유물출토 일람표 4(기타류, p. 144)에서는 백지철회병 「Ⅳ-2-①」 1점 표 2-41, 흑육각화병 「Ⅲ-1-⑤」 1점, 대피유매병 「Ⅲ-2-③」 2점,

백자병「Ⅱ-2-⑥」1점 등 총 5점이 실려 있다.

그밖에 유약이 약간 황색을 띠고 貫入[유약에 생겨나는 갈라진 금]이 많은 백자[牙白色]「Ⅱ-2-③ 卵白質良質白瓷」6점이 길주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 타입에 대해서는 경덕진요 또는 그 이외 요의 제품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길주요에 포함시켜 두고자 한다.

이상 11점이 길주요 제품이며 발견된 도자기 전체로 보면 0.06%로 극소량임을 알 수 있다.

11. 고려 청자

고려 청자는 「Ⅰ-1 고려 청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음각의 매병 표 2-48, 상감청자의 완 표 2-49, 탁, 뚜껑, 베개, 사자연적 등 7점이 발견되고 있다. 전체 비율은 0.04%이다. 최근 항저우나 닝보 시내 유적에서는 수많은 고려 청자 출토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고려 청자는 닝보 또는 항저우에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12. 일본 도자기

일본 도자기는 2점의 세토요의 灰釉陶器瓶子「Ⅳ-4」 외에 印花菊花文이 장식된 토기 화로「Ⅵ-4」2점도 일본제일 것이다. 전체 비율은 0.02%이다. 이들 일본 도자기는 배의 집기, 또는 배의 운항에 관여한 일본인, 혹은 승선해 있던 일본인 상인의 소유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3. 정요 백자

정요 백자는 인화문의 大盤 1점, 盤 1점으로 불과 2점 뿐이며, 양쪽 모두 원대의 제품이 아니라 金代의 제품으로 추정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1%이다. 일본에서는 정요 백자의 출토가 상당히 드물어, 극소량 만이 수입되었음을 사실을 알 수 있다.

14. 불명

위에서 서술한 산지 제품의 수량을 전부 합하면 약 18,560점으로, 도자기 총 개수 18,832점 가운데 약 270점, 약 14%가 현시점에서는 산지 불명인 상태다.

이상의 수량은 『신안해저유물 자료편Ⅰ~Ⅲ, 종합편』에 기록된 1983년도 조사 이전의 수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1984년도 이후에도 도자기는 인양되고 있어(1984년도에는 2,018점, 그 이후는 불명), 그 수치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각 산지의 수량 비율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

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 수치를 표 1에 나타냈는데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용천요로 56%, 이어서 경덕진요로 21%이다. 이 두 요의 제품이 77%,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푸젠 제품이 8%, 금화철점요가 6.1%, 의흥요(또는 저장 북부)가 5.1%로 Ningbo에서 비교적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좋은 산지 제품이 일정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이외 산지 제품 수량은 극소수로, 자주요 0.4%, 석만요 0.12%, 항저우 노호동요 0.1% 등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고려 청자 0.04%, 일본 0.02%, 정요 0.01% 등은 0.1%에도 못 미치는 극소량이다.

Ⅲ. 新安船 發見 陶瓷器의 年代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 대부분은 침몰 연대인 至治3年(1323)보다 약간 앞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건잔처럼 원대에는 이미 생산되지 않는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어 확실히 옛 시대의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다.

建窯에서 생산된 건잔은 가마터의 발굴 조사 결과로부터 남송 말기에는 생산이 끝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건잔 대부분에는 내저부에 차를 만들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마찰 흔적이 확인되며, 구연에 금속제 복륜을 끼운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古物 임이 확실하다. 신안선의 연대보다 반 세기 이상 앞서 생산된 건잔이 42점이나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들은 우연히 신안선에 실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옛 물건을 모아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신안선에서 발견된 2점의 정요 백자도 마찬가지로 金代에 생산된 옛 물건이다. 또한 대량으로 발견된 용천요 청자 가운데에도 확실히 옛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종합편』에 기록된 10,627점의 용천요 청자 가운데 남송 양식「I-2-①類」으로 분류된 것이 37점(0.35%), 원 양식의 우량질 및 양질「I-3-①類」로 분류된 것이 117점(1.1%),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 양식의 일반질「I-3-②類」로 분류된 제품으로 10,469점(98.5%)에 달한다.

이 남송 양식의 37점이 전제품인지 동시대의 것인지가 발견 당초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1998년에 가메이 아키노리[亀井明德]는 이것을 골동품으로 여길 필요는 없고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해도 한동안은 옛 양식의 것들이 일정량 남아서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¹¹ 또한

¹¹ 亀井明德, 『倭好賞翫の青瓷 試論』, 『専修大学人文科学年報』第28号(1998), p. 80.

같은 1998년에 데가와 데쓰로[出川哲朗]는 砧青瓷 타입은 신안선 화물 가운데 불과 0.2%이며, ‘일본에서 인기 있던 13세기의 침청자가 고미술로서 운반되었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¹² 의견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신안 보고서 가운데는 사용 흔적이 있다고 해설되어 있는 鎬蓮瓣文盤이 있는데,¹³ 蓮瓣의 폭이 넓고 높은 굽도 상당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남송 시대의 제품으로 보인다. 또한 2점의 대형 雙耳瓶 가운데, 2점의 耳부분에 흠집이 있다. 이는 실제로 본 느낌으로는 오래된 흠집으로 보이며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것도 전세품일 가능성이 있다.

건잔이나 정요 백자처럼 확실한 옛 물건이 있고, 또 용천요 청자의 ‘남송 양식’으로 분류되는 일군 가운데에도 적어도 1, 2점은 옛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가메이가 말하는 것처럼 용천요 청자 전부가 동시대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고에서 남송 양식으로 분류되어 사진이 발표된 것으로는, 쌍이병(대) 2점, 쌍이병(소) 1점, 雙鳳耳瓶(소) 2점, 筍瓶 1점, 下勝瓶 1점, 管瓶 2점, 袴腰香爐 11점, 雙耳三足香爐 1점, 渣斗 1점, 鎬蓮瓣文盤 1점, 鎬蓮瓣文으로 구연이 바깥으로 외반된 완 1점, 束口碗 3점, 斗笠碗 1점, 사발 뚜껑인 碗蓋 1점 등이 있다. 원 양식으로 분류된 것들 대부분 같은 형태의 것이 복수 존재하는데 비해 남송 양식으로 분류된 것은 袴腰香爐를 제외하면 각 기종의 개수는 한 두 점으로 양상이 다르다.

이 가운데 구연이 바깥으로 외반된 완, 사두, 두립완은 형태적으로는 남송 후기의 四川遂寧窖藏 유적이나 四川東溪園藝場墓 유적의 것과 공통성이 있어 13세기 전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13세기 후반 남송 말에서 원 초기 단계까지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남송 시대 용천요의 분청색 청자를 침청자라고 부르며 특히 귀중히 여겼는데 신안선에서 남송 양식으로 분류된 37점의 청자는 모두 이 砧青瓷 타입이다. 그것 모두를 남송 시대의 생산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건잔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취향에 맞춰 옛 물건들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경덕진요 제품에도 청백자 베개 등 남송 시대의 제품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있다. 또한 고려 청자도 전부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생산 연대가 오래된 것이다.

이처럼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 가운데는 극히 소량에 불과하지만 생산 연대가 남송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옛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옛 물건은 일본인의 취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모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¹² 出川哲朗, 「遂寧窖藏出土の龍泉窯青磁と新安沖沈船及び日本伝世品との比較」, 『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図録』(朝日新聞社, 1998), pp. 122-126.

¹³ 亀井明德, 앞의 책, p. 80.

IV. 新安船 發見 陶瓷器와 杭州, 寧波, 日本 出土 元代 中國 陶瓷器 比較

최근 광저우나 닝보 시내의 유적 발굴조사 보고에서 수많은 출토 도자가 보고되어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늘어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남송 太廟 유적의 원대와 명대의 문화층 출토 유물로서,¹⁴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제품, 푸젠 도자기 외에 자주요 계열 도자기, 장시 성 길주요 제품, 의흥요 장유사이호, 저장 성 금화철점촌요 방균자, 정요 백자 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생산지와 일치되는 점이 많다.

남송 태묘 유적 보고서에서는 출토 층위마다 도자기 수량이 표시되어 있다(보고서:첨부 표 1-2, p. 120). 원대에 상당하는 제3층으로부터는 612점의 도자기 조각이 출토되고 있으며 가장 양이 많은 것은 용천요 청자로서 412점(67%), 다음으로 많은 것이 경덕진요 및 생산지 불명의 청백자로 131점(21%)이다.(생산지 불명의 청백자에는 푸젠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푸젠 도자기는 수치화되어 있지 않으나, 생산지 불명의 청백자 대부분이나 흑유 자기의 일부가 푸젠 제품이며, 또한 원산지 불명의 청자 대부분은 저장 성 금화철점촌요 방균자로, 이 두 요의 제품 양이 경덕진요에 이어 많다. 그 이외의 자주요 계열 도자기, 의흥요 장유사이호, 정요 백자의 출토 수량은 극히 소량이다. 이처럼 용천요 청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덕진요 도자기가 그를 이어 푸젠 도자기와 철점요의 제품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상황은 앞서 설명한 신안선의 도자기 구성과 일치한다.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는 원대에도 중국 남부 최대 도시로서 번영했으며 화남의 정치·경제의 중심이었다. 남송 태묘 유적의 원·명대 문화층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부터 원대에 전국 각지의 도자기가 항저우로 운반되어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각지의 제품이 항저우로 모이는 유통 시스템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안선의 출항지였던 닝보 시내에서도 정식 고고발굴에 의한 자료는 아니지만, 항저우 출토 도자기와 비슷한 원산지 제품이 출토되고 있다.¹⁵ 여기서는 항저우의 남송 태묘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공주요 제품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보고서가 간행된 닝보 영풍고[원대 창고]에서도,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자기, 푸젠 도자기, 금화철점촌요 방균자, 자주요 계열 도자기, 정요 백자 등이 출토되고 있어 항저우나 신안선과 비슷한 도자기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닝보와 항저우는 운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항저우에서 사용된 전국 각지의 도자기가 운하를 통

¹⁴ 杭州市文物考古所, 『南宋太廟遺址』(文物出版社, 2007), 도 38, 50, 51, 52, 54, 57, 115-120, 125, 140, 141외. 다만 보고에서는 대부분의 푸젠 도자기가 “未定窯口(어느 요인지는 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¹⁵ 朱勇偉·陳鋼, 『寧波古陶瓷拾遺』(寧波出版社, 2007).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 『永豐庫 元代倉儲遺址發掘報告』(科學出版社, 2013).

해 닝보로 운반되어 유통되었으며 그 일부가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신안선의 도자기는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지 제품은 소량이다. 용천요 청자와 경덕진 제품은 수출 대상 상품으로서 대량으로 닝보로 운반된 것으로 보이는데, 푸젠 도자기를 비롯해 다른 요의 제품은 수출 대상 상품으로서 항저우나 닝보에서 유통되던 것의 일부가 수출로 돌려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안선과 같은 시대의 일본 국내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기는 용천요 청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푸젠 도자기와 경덕진요 자기가 일정량을 차지한다. 하카타[博多]나 교토[京都], 가마쿠라[鎌倉] 등 당시의 대도시에서는 자주요 계열 도자기, 길주요 제품, 공주요 제품, 의흥요 장유사이호, 저장 금화철점촌요 방균자, 광둥 석만요 장유사이호 등 신안선에서 발견된 각 산지의 도자기가 소량이기는 하지만 출토되고 있어 신안선에 실려 있던 도자기 조성이 당시 일본으로 수입된 중국 도자기의 표준적인 조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V. 新安船 發見 陶瓷器와 東南아시아, 西아시아 出土 元代 中國 陶瓷器 比較

필자는 2007년에 페르시아 만의 키시 섬[Kish]과 마흐루반[Mafruban] 유적에서 중국 도자기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신안선과 거의 같은 시기의 원대 도자기는 모든 유적에서도 용천요 청자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은 것은 푸젠의 백자, 청자였다. 경덕진의 백자나 청화자기는 푸젠 도자기보다도 적었고, 광둥 석만요의 갈유호도 소량 확인되었다. 2014년, 2016년에 다시 이란 조사를 실시해 옛 호르무즈 유적군을 조사했을때와 거의 동일한 조성이 확인되었다.¹⁶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에서 발견되는 원대의 중국 도자기는 용천, 푸젠, 경덕진, 광둥 제품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으며, 가끔 자주요 계열 도자기가 출토된다. 양적으로는 용천요 생산품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푸젠 도자기, 그리고 경덕진, 광둥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자주요 계열 도자기는 미미한 양이다.

이러한 도자기 조성을 신안선과 비교하면 용천요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푸젠 자기와 경덕진 자기의 비율이 역전되어 푸젠 자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동남아시아

¹⁶ 森達也, 「伊朗波斯灣北岸幾個海港遺址發現的中國瓷器」, 『中國古陶瓷研究』第14輯(紫禁城出版社, 2008), pp. 414-429.

나 서아시아로의 도자기 수출이 주로 푸젠 취안저우[泉州]를 거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안저우에 가까운 푸젠 성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 생산된 도자기가 대량으로 선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에서 발견된 원대 중국 도자기는 용천, 푸젠, 경덕진 및 소량의 광둥 제품의 조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요의 제품은 가끔 미미한 양의 자주요 계열 도자기가 수반되는 정도다. 이는 취안저우로부터의 도자기 수출이 무역항 취안저우에 수출을 위해 대량으로 집적된 용천요, 푸젠, 경덕진요의 제품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화난[華南] 제일의 도시였던 항저우에 가까운 Ningbo에서는 수출용으로 대량 집적되어 있던 용천요와 경덕진요 자기 뿐만 아니라 거대 도시였던 항저우에 국내 유통을 통해 모인 중국 각지의 도자기를 옛 물건도 포함해 입수할 수 있었고, 그러한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던 도자기를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선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안선과 같은 다채로운 도자기 조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신안선의 도자기 조성은 당시의 항저우나 Ningbo에서의 도자기 유통 상황을 질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며, 또한 같은 시기 일본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조성과의 공통점이 많다.

일본과의 교류 창구가 항저우에 가까운 Ningbo에 위치함에 따라 취안저우를 창구로 한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에 비해 다채로운 중국 도자기가 일본으로 운반되었는데, 그 원인은 Ningbo가 대도시였던 항저우와 가까웠다는 지리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강한 동경 의식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세기부터 14세기 중반에 걸쳐 일본의 많은 유학승이나 상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유학승은 단순히 불교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중국 문화를 배워 일본에 전했으며, 상인들은 중국의 다양한 기물들을 일본으로 가지고 왔다. 그 결과, 당시의 일본인은 중국과 그 문화에 대해 강한 동경심을 가졌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기물을 가라모노[唐物]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신안선으로부터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유교 禮器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금속기나 칠기 등도 발견되었는데, 당시의 일본인이 도자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가지 기물에 흥미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안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시대에는 중국의 서화나 서적 등도 활발히 수입되어 일본에도 수많은 전세품이 남아 있다.

중국에 대한 강한 동경 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Ningbo로 건너간 상인들은 Ningbo 또는 항저우

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각종 도자기를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으며, 그 결과 닝보나 항저우에서 유통되던 도자기 조성을 질게 반영한 도자기군이 신안선에 적재된 것이다.

또한 당시의 일본인은 그저 중국의 기물을 선호했기 때문에 활발히 수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물의 배경에 있는 중국 문화도 함께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려 했다. 예를 들어 다완을 수입한 배경에는 차 문화 수용이 있었으며, 유교 禮器의 수입 배경에는 유교의 수용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기물을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배경까지도 함께 일본으로 수입하려 한 것이다.

같은 시대 서아시아의 중국 도자기 수용은 이러한 일본의 수용과는 달리 기물의 배경에 있는 중국 문화는 흥미의 대상이 아니었고, 아름답고 견고하며 완성도가 높은 기물로써의 흥미를 기본으로 한 수입이었다. 즉,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점에서 수입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차 도구로서 귀하게 여겨진 건잔은 서아시아로는 거의 수출된 흔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기물로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의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 의식과 닝보의 지리적 요인이 신안선의 다채로운 도자기 조성을 성립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건잔이나 정요 백자, 용천요의 침청자 등 신안선에서 발견된 오래된 도자기로부터는 일본인의 중국 문화에 대한 독특한 수용 방식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한 시대 전의 차 문화나 차 도구가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유행했고, 그렇게 오래된 다기를 의식적으로 사들여 모으거나, 일본인이 특히 동경한 송대의 중국 도자기를 대표하는 용천요의 침청자나 정요 백자 등의 옛 물건을 구하려는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일본인은 동시대의 중국 문화를 동경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친숙한 한 시대 전의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강하게 품었으며, 복층적으로 중국 문화 및 기물을 수용했음을 신안선의 도자기 조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당시의 일중 교류의 정신적인 배경까지도 알 수 있는 드문 연구 자료로서 자리매김시킬 수 있을 것이다.

Composition of Chinese Ceramics Discovered from the Sinan Shipwreck: Examin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Yuan ceramics found in China, Japan,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Mori Tatsuya*

The Sinan find includes approximately 20,000 pieces of Chinese ceramics, seven pieces of Goryeo celadon and a few pieces of Japanese ceramics. Half of the Chinese ceramics were Longquan celadon of Zhejiang Province (浙江省), while one-third was Jingdezhen porcelain from Jiangxi Province (江西省). Also found were ceramics produced all around China, from Hebei Province (河北省) in the north to Guangdong Province (廣東省) in the south. The Sinan shipwreck is believed to have been a trading vessel that departed from Ningbo, sailing toward Hakata, Japan. How then was it possible that such diverse products from various Chinese provinces were transported on this ship?

In order to examine this question further,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features of the ceramics found on the Japan-bound Sinan shipwreck with the ceramics found in the historic sites of Ningbo and Hangzhou, various historic sites in Japan (focusing on Hakata), different sites in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articularly those of Iran),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regional ceramics of the Yuan (元) period and of types of vessel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strong resemblance between the composition type of the ceramic wares from the Sinan and ceramic products that were circulated in the markets of Ningbo and Hangzhou. On the other hand, thes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hinese ceramics exported to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in the same period. On the basis of this comparis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Japanese people were also interested in importing Chinese culture along with the ceramics.

Key Worlds: Sinan shipwreck, Chinese ceramics, Japan-Yuan Trade, Ningbo, Hakata

* Prof. Faculty of Arts and Crafts Okinawa Prefectural University of Arts

新安沈船発見中国陶瓷の組成研究

—中国、日本、東南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陶瓷との比較を通じて—

沖縄県立芸術大学 美術工芸学部 教授 森 達也

I. はじめに

新安沈船では2万点余りの中国陶瓷のほか、7点の高麗青瓷、2点の日本瀬戸窯陶瓷が発見された。中国陶瓷の半数以上は浙江省の龍泉窯青瓷、5分の1は江西省の景德鎮窯瓷器で占められている。その他に、福建省の白瓷、青瓷、黒釉瓷、華北地域の磁州窯系陶瓷、江西省の吉州窯瓷器と贛州七里鎮窯陶瓷、広東省の石湾窯醬釉四系罐、河北省の定窯白瓷、江蘇省南部または浙江省北部の醬釉四系罐、浙江省の金華鉄店窯、浙江省杭州の老虎洞窯青瓷など中国各地の産地の陶瓷器が発見されている。新安沈船は元時代の至治三年（1323）に中国の寧波（当時の名称は慶元）を出港し、日本の博多に向かった貿易船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が、なぜこの船に中国各地の広い地域にわたるさまざまな産地の製品が積み込まれたのか？この陶瓷器組成がどのような意味を持つのか？

本発表ではこれら問題を考えるために、出港地の寧波とその付近の杭州の遺跡、目的地の博多を中心とする日本各地の遺跡、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の遺跡で出土した元時代の中国陶瓷の産地組成や器種組成を比較検討し、新安沈船に積み込まれて日本に運ばれる予定であった陶瓷器の特性とその文化史的背景を解明したい。

II. 新安沈船発見陶瓷の産地

新安沈船は、韓国西南端の全羅南道新安郡沿海において1976年に発見され、同年から1984年にかけて11次にわたる水中調査が実施された。全長約28m、幅約9mの木造帆船の船体と、陶瓷器2万余点、金属製品729点、銅銭約28t、木製品、漆器など多彩な遺物が引き揚げられた。

発見された「至治三年（1323）」銘の木簡と「慶元路」銘の青銅錘から、この船は1323年に慶元（寧波）を出航したと考えられており、発見された陶磁器は元時代の中国陶磁を研究するうえで極めて重要な資料となっている。

陶磁器は大部分が中国陶磁で、龍泉窯青瓷が2万余点の全陶磁器の約5分の3占め、次いで景德鎮の青白瓷、白瓷などが約5分の1を占める。福建製品の占める割合はそれほど高くないようであるが¹、閩清窯の白瓷碗・皿²や福建北東部あるいは浙江東南部で生産されたと思われる芒口白瓷碗³、建盞⁴、南平・茶洋窯の黒釉碗⁵、徳化窯褐釉碗⁶、福州・洪塘窯の醬釉小壺⁷（茶入）、磁竈窯の壺や甕など、福建各地のさまざまな窯の製品と器種がある。

他に数量は多くないが、華北の磁州窯系陶磁、河北省・定窯白瓷、江西省・吉州窯と贛州窯の製品、江蘇省・宜興窯または浙江省北部の褐釉四耳壺、浙江省・金華鉄店村窯倣鈞瓷、杭州・老虎洞窯元代青瓷、広東省・石湾窯醬釉四耳壺、高麗青瓷、日本・瀬戸窯製品などが発見されている 表 1。

1. 龍泉窯

龍泉窯青瓷は、報告書『新安海底遺物（総合篇）』の表 1（総合篇：368～370頁）によると、1983年までに引揚げられた全陶磁器18,832点（この表の下を追記によると、1984年に引き揚げられた陶磁器は2,018点あり、それを加えると合計20,850点となるが、84年に引き揚げ遺物の詳細な分類と内訳は示されていない）のうち約56%の10,627点が龍泉窯青瓷である。このうち南宋様式（Ⅰ－2－①類）とされるものが37点、元様式の優良質及び良質（Ⅰ－3－①類）とされるものが117点、大部分を占めるのは元様式の一般質（Ⅰ－3－②類）とされるもので10,469点を数え、報告された陶磁器全体（18,832点）の約55%を占める。なお、この表1では、総合篇371頁の分類表にある素質青瓷（Ⅰ－3－③類）の数量は示されておらず、龍泉窯青瓷の数はさらに多いかもしれない。

1 報告書では、福建陶磁と明確に分類されていないものが多い。

2 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 白瓷・其他遺物』（2006C）。白瓷№26,27,76,78,79。

3 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 白瓷・其他遺物』（2006C）。白瓷№41-49。

4 建盞（水吉窯）では、南宋末に建盞の生産を終了し、青白磁の生産に移行していることと、新安沈船発見のすべての建盞の内底部に長期間使用されたことを示す擦痕があることから、新安沈船の建盞は骨董または中古品と考えられる。

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 青瓷・黒釉』（2006b）。№38-45。

5 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 青瓷・黒釉』（2006b）。黒釉№50。

6 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 青瓷・黒釉』（2006b）。黒釉№46-47。

7 文化財庁・国立海洋遺物展示館、『新安船 青瓷・黒釉』（2006b）。黒釉№27-30。

「南宋様式」として報告された37点の龍泉窯青瓷については、他の遺物と同じ元代中期に生産されたものとする説と、南宋代に生産されたものがアンティックとして積まれていたとする説と2つの説が出されているが、筆者は、「南宋様式」のものに使用痕が残っているものがあることや、ほぼ同時期と推定される中国の窖藏出土品には新安沈船の「南宋様式」のような粉青釉の「薄胎厚釉」青瓷が含まれることがほとんどないことなどから、アンティックまたは中古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ている。

報告で「元様式」に分類されている約10,600点の青瓷の中には、瓶、壺、荷葉蓋罐（酒会壺）表2-27、水注、水滴、香炉、盤、碗表2-28、托、洗（水盤）、鉢、馬上杯表2-29、花盆、合子、人形燭台などさまざまな器種が見られるが、数量的には大部分が碗・皿などの食器である。

碗・皿類は良質と一般質の差が明瞭で、良質品は南宋時代の「薄胎厚釉」の蓮弁文碗・皿と同じような、端部以外を総釉にする断面三角形の高台をもつ。ただし、高台端部の露胎部分の幅は、南宋末・元初期段階よりも広い。外面には細目の蓮弁文や精緻な劃花文が施される。

一般質品の多くは、幅が広く、断面四角形の高台をもち、高台内無釉か高台内の釉をリング状に剥ぎ取っている。粗い蓮弁文、線描蓮弁文、劃花文のほか内面全体への印花文が多用される。また、外側面の口縁直下に四～六条前後の平行沈線文（櫛目文）を施すものが多いことも特徴的である。新安沈船の碗・皿の大部分はこの低質品である。この一般質品は、南宋期龍泉窯青瓷の「厚胎薄釉」の粗製品の系譜を引いている。

瓶や荷葉蓋罐、大盤などの大形品は種類が多すぎて個別に特徴を述べることはできないが、劃花文、印花文、貼花文、印花文によって多くの装飾を施すことが特徴である。器形は大形化し、器壁は厚く、全体の造形は粗くなる傾向が強い。釉は厚くかけられ、緑が濃くなる傾向にある。大盤には、碗に見られる高台内リング状釉剥ぎの技法を用いるものが増えることや口縁が稜花形となるものが現われることも特質すべき点である。また、元代に好まれた馬上杯はこの時期に出現している。量は少ないが鉄斑文青瓷（飛青瓷）や素胎貼花文青瓷が見られることも特徴的である。

2. 景德鎮窯

報告書『新安海底遺物（総合篇）』の表1（総合篇：368～370頁）では、1983年までの引き揚げ遺物として白瓷が5,120点とされているが（1984年にはさらに183点が引き揚げられている）、そのうち3,717点は青白瓷、1,403点は白瓷に分類されている表2-30～32。

青白瓷とされたものの多くは景德鎮窯の製品と考えられるが、口述するようにその一部には福建の製品も含まれている。景德鎮窯の青白瓷の器種には瓶、壺、水注、水滴、香炉、小花瓶、碗、皿などがあり、装飾は劃花文や印花文、貼花文などが多用され、数は少ないが釉裏紅や鉄斑文などもある。香炉や水注、水滴、小花瓶などは型造りによるものが多い。

総合篇表1の白瓷1,403点の内、景德鎮の白瓷はⅡ-2-⑤に分類された413点で、枢府手と呼ばれる印花文を多用した碗や皿が主であるが、釉下彩の鉄絵を施した製品も10点ほど含まれている。

総合篇で報告された景德鎮窯の製品は青白瓷、白瓷を合わせて4,100余点であり、全体の約21%、約5分の1である。

3. 福建諸窯

福建製品で最も多いのは、口縁の端に釉が施されない芒口白瓷碗で、内底部に蓮花文や「長命富貴」「玉出崑山」「福祿雙全」「白玉片一」などの文字が押印されているものがある(表2-38)。新安『総合篇』表1では、「Ⅱ-2-①普通質白瓷」に分類されており、616点が計上されている。芒口白瓷碗の産地はまだ判明していないが、福建省の閩江以北の製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浙江省の東南部地域の製品である可能性もあるが、ここでは便宜的に福建製品に含めておく。日本でも13世紀後半から14世紀の遺跡で数多く発見されているが、内底に印花文が施されるタイプは少ない。印花文を持つタイプは寧波・永豊庫遺跡で出土している⁸。

新安『総合篇』表1で、「Ⅱ-2-①粗質白瓷」とされている白瓷も多くが福建製品と考えられる。このタイプはA、B、Cの3タイプに細分され、Aは外底部露胎(表2-37)、Bは口縁部と外底部露胎、Cは内・外底部露胎という特徴が示されている。

「Ⅱ-2-①A」は、内面に印花文や劃花文が施される碗や皿で、表1では80点が計上されている。このタイプの白瓷碗・皿は福建省の閩清窯を中心として閩江流域の各地の窯で生産されている(表2-37)。

「Ⅱ-2-①B」は、内面に双魚文や魚藻文などの陽刻印花文が施される。産地は明らかではないが、製品の特徴から見て福建の製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新安『総合篇』表1では270点が計上されている。

⁸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永豊庫 元代倉儲遺址発掘報告』(科学出版社、2013)、彩版62-3~6。

「Ⅱ-2-①C」は、口縁が直線的に斜めに開く単純な形の碗・皿で、灰色がかった釉がかけられ、内外底部は露胎である。『新安海底遺物総合篇Ⅱ』では「Ⅱ-2-①A」の中に分類されていたが、『総合篇』表1では、「Ⅱ-2-①C」として新たな分類で位置づけられ、12点が計上されている。連江・浦口窯や莆田窯など、福建中・北部で近似した粗製瓷器が生産されているが、白瓷ではなく青瓷または青白瓷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とが多い。龍泉窯でも元時代に内外底部露胎の粗製青瓷が生産されており、このタイプはそうした龍泉窯青瓷の粗製品を福建省で模倣したものであろう。

2006年の図録『新安船』青瓷48「青瓷四耳花瓶」は、福州・宦溪窯を中心とした閩江下流域地域で生産された製品で表2-36、日本では「白瓷四耳壺」とされるタイプであり全国各地の遺跡で出土している。

新安『総合篇』で「Ⅱ-1-①C緻密質青白磁」の青白瓷注子として写真が掲示されている水注（『総合篇』p455、図90）は、閩清窯の製品であることが近年確認された⁹。福建陶瓷は白瓷だけでなく、黒釉や褐釉の陶瓷器の中にも少なくない。

建盞は、『総合篇』では「Ⅲ-2-①（建窯天目）」として分類され、42点（内訳、資料篇Ⅰ：11点、資料篇Ⅱ：4点、資料篇Ⅲ：16点、総合篇：11点）が数えられている（表2-33）。大部分の建盞の内底部には茶を点てた際についた擦痕が残り、口縁には金属製の覆輪がはめられたものもある。詳細は後述するが、いずれも南宋時代に生産されたものである。

建盞のほかに閩江中流域の茶洋窯で生産されたやや器高の低い碗や表2-34、徳化窯製品の可能性が高い天目形の碗がある。

茶洋窯製品は『総合篇』で「Ⅲ-1-②A盃」として分類され、69点が数えられている表2-34。また、『資料篇Ⅰ』では、「Ⅲ-1-②A盃」が73点、『資料篇Ⅲ』では、80年度発見の「Ⅲ-1-②-盃」が123点と記載されており、写真は提示されていないが、文章で示された特徴から見てこれらも茶洋窯製品と推定され、合計265点が茶洋窯の黒釉碗と思われる。

徳化窯の天目形碗は口縁部分が屈曲することが特徴で、口縁端部に青釉や白釉が施されるものが多い。「Ⅲ-1-①B盃（黒釉青口盃）」、「Ⅲ-1-②A盃（黒釉青口盃）」、「Ⅲ-1-②B盃（黒釉曲口盃）」に分類されている。『新安海底遺物Ⅰ～Ⅲ、総合篇』の掲載資料を比較検討すると「Ⅲ-1-①B盃（黒釉青口盃）」は2点、「Ⅲ-1-②A盃（黒釉青口盃）」、「Ⅲ-1-②B盃（黒釉曲口盃）」はそれぞれ1点で、徳化窯の可能性が高い天目形碗は合計4点となる。

9 2015年7月に閩清市博物館の窯址出土陶片の展示で筆者が確認した。

短頸の黒褐釉小壺は日本では大海茶入として珍重されたタイプに近く、福州の洪塘窯の製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表 2 - 35。『総合篇』表1では「V - 1 - ①A④黒褐釉小壺」188点と「V - 1 - ①A⑥黒褐釉小壺」29点の大部分がこのタイプの小壺であるが、この中には頸部が長く伸びるタイプも少数含まれており、大海茶入タイプの洪塘窯製品は200点前後と推定される。

その他に、黒釉や褐釉がかけられた大壺や甕の中にも福建の製品と思われるものがある。「V - 1 - ②C 褐釉四耳壺」1点と「V - 1 - ②D 褐釉大壺」9点は、肩部に目跡が残る特徴から福建・磁窰窯の製品と思われる。

以上の福建陶瓷を合計すると約1,500点となり、『総合篇』表1の総点数18,832点の約8%となる。

4. 金華鉄店窯

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乳濁釉が施された製品を『新安海底遺物、資料篇Ⅰ～Ⅲ、総合篇』では鈎窯系と表示しているが、今日ではこれらの製品は浙江省の金華鉄店窯の製品とされている表 2 - 39。ただし、こうした乳濁釉陶瓷は鉄店窯だけでなく浙江省衢州市・衢県大川窯でも発見されている。

乳濁釉陶瓷（「V - 1 - ①」）は新安沈船では183点が発見（『総合篇』表1）されているが、その他に黒釉壺（表2 - 40）（「V - 1 - ③暗褐釉立壺」）961点が鉄店窯で生産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¹⁰。合計1,144点が鉄店窯製品となり、『総合篇』表1の陶瓷器総点数18,832点の6.1%を占める。

5. 宜興窯

褐釉や黒釉が施されたやや小形の双耳壺、四耳壺、短頸壺は、水容器として用い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て中国では「韓瓶」と呼ばれている。新安沈船発見の「韓瓶」のうち、一部のタイプは江蘇省南部の宜興窯を中心に、浙江省北部にかけての一带で生産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

褐釉双耳壺（「V - 2 - ①B」）52点表 2 - 43、短胴の黒褐釉四耳壺（「V - 2 - ②A」）48点、長胴の黒褐釉四耳壺（「V - 2 - ②B」）11点表 2 - 44、耳の無く短頸の黒褐釉壺（「V - 2 - ①A」）856点で、合計967点となる。『総合篇』表1の陶瓷器総点数18,832点の5.1%を占める。

¹⁰ 窯址にて筆者確認。

6. 贛州窯

口縁の下に白釉で列点文を配した小壺を、日本では「播座茶入」と呼んで珍重した。江西省南部の贛州七里鎮窯で生産されたことが知られており、新安沈船でも発見されている（表2 - 42）。

内外面に黒釉が施されたタイプ（「Ⅲ - 1 - ③」）58点と外面は露胎で櫛目文が施され、内面のみに黒釉（または褐釉）が施されるタイプ（「Ⅲ - 1 - ④」）24点が発見されている。前者のタイプは吉州窯製品の可能性もあるが、ここでは贛州窯製品としておきたい。

合計は82点となり、『総合篇』表1の陶磁器総点数18,832点の0.44%を占める。

7. 磁州窯系陶磁

磁州窯系陶磁には白地鉄絵、黒釉、黒釉鉄斑文、褐釉などがあり、器種には壺、瓶、洗、碗、盞などがある。

白地鉄絵は「Ⅳ - 2 - ②」に分類され、壺、洗など7点が引き揚げられている（表2 - 46, 47）。黒釉や褐釉の所謂「河南天目」系の資料は、「Ⅲ - 2 - ②A 素文（黒釉のみ）」19点、「Ⅲ - 2 - ②B 口縁部白釉」1点（78年度発見）、「Ⅲ - 2 - ②C 鎬文（鉄斑文）」9点の29点が発見されている。

また、河南天目には分類されていないが、黒褐釉有蓋小壺（「Ⅴ - 1 - ①B」）6点、黒褐釉大壺（「Ⅴ - 1 - ②E」）28点、黒褐釉長胴四耳壺（「Ⅴ - 2 - ②C」）11点のほか、孔雀釉印花鳳凰文盤（「Ⅳ - 3」）2点も磁州窯系の可能性が高い。

これらを合計すると76点となり、『総合篇』表1の陶磁器総点数18,832点の0.4%を占める。

8. 広東石湾窯

日本で「茶壺」として愛好された球胴の褐釉四耳壺の多くは、広東省石湾窯（奇石窯）の製品で、新安沈船では「Ⅴ - 1 - ②B 四耳壺」に分類され22点が数えられている（表2 - 45）。肩部に「清香」、「寶」、「正寶」などの漢字印銘のほか、パスパ文字の印銘が施されているものもある。

『総合篇』表1の陶磁器総点数18,832点の0.12%を占める。

9. 杭州老虎洞窯

新安沈船で「Ⅰ - 2 - ②官窯式青瓷」に分類されたものの多くは杭州・老虎洞窯の元時代地層から出土した青瓷に近似しており、18点が発見されている。

『総合篇』表1の陶磁器総点数18,832点の0.1%を占める。

10. 吉州窯

吉州窯の製品には、白地鉄絵瓶、黒釉刻花瓶、玳皮釉梅瓶、白瓷などがある。

新安『総合篇』表1 (p368～p370) と分類表 (p371)、遺物出土一覧表 (4. 其他類、p144) では、白地鉄絵瓶 (「Ⅳ - 2 - ①」) 1点 表 2 - 41、黒釉刻花瓶 (「Ⅲ - 1 - ⑤」) 1点、玳皮釉梅瓶 (「Ⅲ - 2 - ③」) 2点、白瓷瓶 (「Ⅱ - 2 - ⑥」) 1点の計5点が示されている。

その他に、釉がやや黄色がかり貫入が多い白瓷 (牙白色白瓷) (「Ⅱ - 2 - ③」卵白質良質白瓷) 6点が吉州製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このタイプについては景德鎮窯またはそれ以外の窯との説もあるが、ここでは吉州窯に含めておきたい。

以上11点が吉州窯製品であり、発見された陶磁器全体から見ると0.06%と極めて少量であることがわかる。

11. 高麗青瓷

高麗青瓷は「Ⅰ - 1高麗青瓷」に分類されており、陰刻の梅瓶 表 2 - 48、象嵌青瓷の碗 表2 - 49、托、蓋、枕、青瓷獅子など7点が発見されている。全体の比率は0.04%である。近年、杭州市内や寧波市内の遺跡では数多くの高麗青瓷の出土が確認されており、これらの高麗青瓷は寧波または杭州で買い付けら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12. 日本陶磁

日本陶磁は2点の瀬戸窯の灰釉陶器瓶子 (「Ⅳ - 4」) のほか、印花菊花文が施された土器の火爐 (「Ⅵ - 4」) 2点も日本製であろう。全体の比率は0.02%である。これらの日本陶磁船の什器、または船の運航にかかわった日本人、あるいは乗船していた日本人商人の所有物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

13. 定窯白瓷

定窯白瓷は印花文の大盤1点、盤1点のわずかに2点のみであり、どちらも元時代の製品ではなく金時代に位置づけられる。全体数での比率はわずかに0.01%である。日本では定窯白瓷の出土はかなり少なく、わずかな数量しか輸入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る。

14. 不明

上述の産地の製品の数量を総合計すると約18,560点で、陶瓷器総点数18,832点の内、約270点、約14%が現時点では産地不明となる。

以上の数量は『新安海底遺物、資料篇Ⅰ～Ⅲ、総合篇』で示された1983年度調査以前の数値を基にしているが、1984年度以降にも陶瓷器は引き揚げられており（84年度には2,018点、それ以後は不明）、そうした数値は反映されていないが、各産地の数量の比率は基本的には大きな差はないと考えてよいだろう。

この数値を表1に示したが、比率が最も高いのが龍泉窯で56%、次いで景德鎮窯で21%となる。この二つの窯の製品で77%、約4分の3を占めている。

次いで、福建製品が8%、金華鉄点窯が6.1%、宜興窯（または浙江北部）が5.1%と、寧波から比較的近く交通の便の良い産地の製品が一定量を占める。

これら以外の産地の製品の数量はごくわずかで、磁州窯0.4%、石湾窯0.12%、杭州・老虎洞窯0.1%などが1%に満たない。高麗青瓷0.04%、日本0.02%、定窯0.01%などは0.1%にも満たない微量となっている。

Ⅲ. 新安沈船発見陶瓷器の年代

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大部分は、沈没年代の至治三年（1323）より少し前に生産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しかし、その中には建盞のように元時代には既に生産されていない陶瓷器も含まれており、明らかに古い時代の陶瓷器も含まれている。

建窯（水吉窯）で生産された建盞は、窯址の発掘調査の結果から南宋末期には生産が終わ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建盞の大部分には内底部に茶を点てる際についたと思われる擦痕が認められ、口縁に金属製の覆輪をはめたものもあることから、古物であ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新安沈船の年代より半世紀以上前に生産された建盞が42点も

発見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れらはたまたま新安船に積み込まれたものではなく、意図的に古物を集めて日本向けの船に積み込んだと考えられる。

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2点の定窯白瓷も同様で、金時代に生産された古物である。

また、大量に発見された龍泉窯青瓷の中にも、明らかに古物と思われるものがある。

『新安海底遺物（総合篇）』で示された10,627点の龍泉窯青瓷のうち、南宋様式（Ⅰ-2-①類）とされるものが37点（0.35%）、元様式の優良質及び良質（Ⅰ-3-①類）とされるものが117点（1.1%）、大部分を占めるのは元様式の一般質（Ⅰ-3-②類）とされるもので10469点（98.5%）を数える。

この南宋様式の37点が伝世品であるか同時代のものかが発見当初から問題にされていたわけであるが、1998年に亀井明德氏はこれをアンティークと考える必要はなく、新しい様式が作られはじめてもしばらくの間は古い様式のものが一定量残る減少の現われであるとしている¹¹。また、同じ1998年に出川哲朗氏は「砧青瓷」タイプは新安積み荷の中のわずか0、2%であり、「日本で人気のあった13世紀の砧青瓷が「古美術」として運ばれた」とまったく逆の意見を述べており¹²、意見の一致は見えていない。

なお、新安の報告書の中には使用痕があると解説されている鎬蓮弁文盤があるが¹³、蓮弁の幅が広く高台の作りも非常に丁寧で、南宋時代の製品と考えられる。また、2点の大形双鰭耳瓶のうち1点の鰭の尾の部分に傷があるが、実見したところでは古い傷のように思える。明確な根拠はないがこれも伝世品の可能性がある。

建盞や定窯白瓷のように明らかに古物の一群があり、また龍泉窯青瓷の「南宋様式」とされる一群の中にも少なくとも1・2点は古物が含まれていることから、亀井氏のいうように龍泉窯青瓷すべてが同時代のもの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報告で「南宋様式」とされ写真が発表されているものには、双鰭耳瓶（大）2点、双鰭耳瓶（小）1点、双鳳耳瓶（小）2点、筍瓶1点、下膨瓶1点、5管瓶2点、袴腰香炉11点、双耳三足香炉1点、査斗1点、鎬蓮弁文盤1点、鎬蓮弁文端反り碗1点、束口碗3点、斗笠碗1点、碗蓋1点などがある。元様式とされるものの多くが同形のものが複数あるのと比べると、南宋様式とされるものは袴腰香炉を除くと各器種の点数は1点か2点で、様相が異なる。

11 亀井明德、「倭好賞翫の青瓷 試論」、『専修大学人文科学年報』第28号(1998)、80頁。

12 出川哲朗、「遂寧窖藏出土の龍泉窯青磁と新安沖沈船及び日本伝世品との比較」、『封印された南宋陶磁展 図録』（朝日新聞社、1998）、122～126頁。

13 韓国文化広報部・文化財管理局、『新安海底遺物-総合編』（1988）、422頁 図11。

このうち双鯢耳瓶（大）、鎬蓮弁文盤、鎬蓮弁文端反り碗、查斗、斗笠碗は形態的には南宋後期の四川・遂寧窖蔵や四川・東溪園芸場墓のものと共通性があり、13世紀前半段階まで遡り得るが、他のものについては、遡っても13世紀後半の南宋末から元初期の段階までであろう。

日本では、南宋時代龍泉窯の粉青色青瓷を「砧青瓷」と呼んで特に珍重したが、新安沈船で南宋様式と分類された37点の青瓷は、いずれもこの「砧青瓷」のタイプである。このすべてが南宋時代の産品とは限らないが、建盞と同じように日本人の嗜好にあわせて古物が集められた可能性が高い。

そのほか、景德鎮窯製品にも青白磁枕など南宋時代の製品であ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ものがある。また、高麗青瓷も全てが同時代のものではなく、多くは生産年代が古いも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中には、ごく少量ではあるが、生産年代が南宋時代まで遡る古物が含まれている。こうした古物は、日本人の嗜好を意識して、意図的に集めら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高いのである。

Ⅳ．新安沈船発見陶瓷と杭州、寧波、日本出土の元代中国陶瓷との比較

近年、広州市内や寧波市内の遺跡の発掘調査報告で数多くの出土陶瓷器が報告され、新安沈船発見の陶瓷器と比較することができる良好な資料が増えてきた 表 2。

特に重要なのは、南宋太廟遺跡の元時代と明時代の文化層の出土遺物で¹⁴、龍泉窯青瓷、景德鎮窯製品、福建陶瓷のほか磁州窯系陶瓷、江西省・吉州窯製品、宜興窯醬釉四耳壺、浙江省・金華鉄店村窯倣鈞瓷、定窯白瓷などが出土しており、その内容は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の生産地と一致する点が多い。

南宋太廟遺跡の報告書では出土層位ごとの陶瓷器の数量が示されている（同報告書：附表一・二、p120）。元時代に相当する第3層からは612点の陶瓷器片が出土しており、最も量が多いのは龍泉窯青瓷で412点（67%）、次いで多いのが景德鎮窯及び生産地不明の青白瓷で131点（21%）である（生産地不明の青白瓷には福建製品が含まれている）。福建陶瓷は数値化されていないが、生産地不明の青白瓷の多くや黒釉瓷器の一部が福建製品であり、また産地不明の青瓷の多くは浙江省・金華鉄店村窯倣鈞瓷で、この二つの窯の製品の量が景德鎮窯の次いで

¹⁴ 杭州市文物考古所、『南宋太廟遺址』（文物出版社、2007）、彩版38,50,51,52,54,57,115-120,125,140,141ほか。ただし、報告では大部分の福建陶瓷が「未定窯口（窯不明）」と表示されている。

多い。それ以外の磁州窯系陶瓷、宜興窯醬釉四耳壺、定窯白瓷の出土数はごく少量である。このように、龍泉窯青瓷が半数以上を占め、景德鎮窯陶瓷がそれに次ぎ、福建陶瓷と鉄店窯の製品がさらにその次に位置づけられる状況は前述した新安沈船の陶瓷器組成と一致する。

南宋朝の首都であった杭州は、元時代にも中国南部最大の都市として繁栄し、華南の政治・経済の中心であった。南宋太廟遺跡の元・明代文化層出土遺物の様相から、元時代に全国各地の陶瓷器が杭州に運ばれて消費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各地の製品が杭州に集まる流通システムが確立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

新安船の出港地である寧波市内でも、正式な考古発掘による資料ではないが、杭州出土陶瓷と同じような産地の製品が出土している¹⁵。ここでは杭州の南宋太廟遺跡では出土していない贛州窯製品も発見されている。また、近年報告書が刊行された寧波・永豊庫（元時代倉庫）でも、龍泉窯青瓷、景德鎮窯瓷器、福建陶瓷、金華鉄店村窯倣鈞瓷、磁州窯系陶瓷、定窯白瓷などが出土しており、杭州や新安沈船と近似した陶瓷器組成がみられる。

寧波と杭州は運河で結ばれており、杭州で使用された全国各地の陶瓷器が、運河を通じて寧波に運ばれて流通し、その一部が日本向けの船に積み込まれたと考えてよいであろう。なお、新安沈船の陶瓷器は、大部分が龍泉窯青瓷と景德鎮製品で占められており、他の産地の製品は少量である。龍泉窯青瓷と景德鎮製品は輸出向けの商品として大量に寧波に運ば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が、福建陶瓷をはじめとする他の窯の製品は、輸出向けの商品として杭州や寧波に運ばれたのではなく、国内消費のために杭州や寧波で流通したものの一部が輸出にまわされ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

新安沈船と同時代の日本国内の遺跡で出土する中国陶瓷は、龍泉窯青瓷が最も多く、次いで福建陶瓷と景德鎮窯瓷器とが一定量を占める。博多や京都、鎌倉など当時の大都市では、磁州窯系陶瓷、吉州窯製品、贛州窯製品、宜興窯醬釉四耳壺、浙江・金華鉄店村窯倣鈞瓷、広東・石湾窯醬釉四耳壺など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各産地の陶瓷器が少量ではあるが出土しており、新安船に積み込まれていた陶瓷器の組み合わせが、当時日本に輸入された中国陶瓷の標準的な組成を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表 2。

¹⁵ 朱勇偉・陳鋼、『寧波古陶瓷拾遺』（寧波出版社，2007）。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永豊庫 元代倉儲遺址発掘報告』（科学出版社，2013）。

V. 新安沈船発見陶器と東南アジア、西アジア出土元代中国陶器との比較

筆者は2007年にペルシア湾のキーシュ島（Kish 基什島）とマフルバーン遺跡（Mafruban）で中国陶器の調査を行なったが、新安沈船とほぼ同時期の元代陶器についてはどちらの遺跡でも龍泉窯青瓷が過半を占め、次に量が多いのは福建の白瓷、青瓷であった。景德鎮の白瓷や青花瓷器は福建陶器よりも少なく、広東・石湾窯の褐釉壺も少量確認できた¹⁶。2014年、2016年に再びイラン調査を実施し、旧ホルムズ遺跡群を調査したがその際にもほぼ同様の組成が確認できた。

東南アジア・西アジアなどで発見される元代の中国陶器は龍泉、福建、景德鎮、広東の製品にほぼ限定されており、まれに磁州窯系陶器が出土する。量的には龍泉が過半を占め、次いで福建陶器、さらに景德鎮、広東の製品がそれに次ぎ、磁州窯系陶器は微量である。

こうした陶器組成を新安沈船と比較すると、龍泉窯が過半を占める点は共通しているが、福建瓷器と景德鎮瓷器の割合が逆転して、福建陶器の占める割合が高くなっている。これは、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への陶器輸出が主に福建・泉州を拠点として行なわれたため、泉州に近い福建省内で輸出目的に生産された陶器が大量に船積みされたためと考えられる。

東南アジア・西アジア発見の元代中国陶器は龍泉、福建、景德鎮および少量の広東製品という組成を示し、他の窯の製品はまれに微量の磁州窯系陶器が伴うことがある程度である。これは、泉州からの陶器輸出は、貿易港・泉州に輸出のために大量に集積された龍泉窯、福建、景德鎮窯の製品にほぼ限定されていたためと考えられる。

一方、華南第一の都市・杭州に近い寧波では、輸出用に大量集積されていた龍泉窯と景德鎮窯瓷器だけでなく、巨大都市・杭州に国内流通によって集まった中国各地の陶器を古物も含めて入手することができ、そうした国内市場で流通した陶器を日本向けの船に積み込ことが可能であったため、新安沈船のような多彩な陶器組成が形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VI. おわりに

以上のように、新安沈船の陶器組成は、当時の杭州や寧波での陶器流通の状況を色濃く反映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り、さらに同時期の日本出土陶器の組成とも共通性が高い。

¹⁶ 森達也、「伊朗波斯湾北岸幾個海港遺址發現的中国瓷器」、『中国古陶瓷研究』第14輯（紫禁城出版社，2008），p414—429。

日本との交流の窓口が杭州に近い寧波に置かれていたことによって、泉州を窓口とした東南アジアや西アジアに比べて多彩な中国陶磁器が日本に運ばれたわけであるが、その原因は、寧波が大都市・杭州に近かったという地理的要因だけでなく、日本人の中国への強い憧憬意識も大きく働いていたと思われる。

12世紀から14世紀中頃にかけて日本からは多くの留学僧や商人が中国に渡航した。留学僧は単に仏教を学ぶだけでなく、多彩な中国文化を学び日本に伝え、商人たちは中国のさまざまな器物を日本に運んだ。その結果、当時の日本人は中国とその文化に強い憧れを抱き、中国から輸入したな器物を「唐物」と呼んで珍重したのである。

新安沈船からは陶磁器だけでなく、儒教礼器を中心としたさまざまな金属器や漆器なども発見されており、当時の日本人は陶磁器だけでなく、中国のさまざまな器物に興味を持ち、受容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新安沈船では発見されていないが、この時代には中国の書画や書籍なども盛んに輸入され、日本には数多くの伝世品が残されている。

中国への強い憧憬意識を基に、日本から寧波に渡航した商人は、寧波または杭州で手に入るあらゆる種類の陶磁器を買い付けて日本に運ぼうとし、その結果、寧波や杭州で流通していた陶磁器の組成を色濃く反映した組成の陶磁器群が新安船に積み込まれたのである。

また、当時の日本人は単に中国の器物を好んだために盛んに輸入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く、その器物の背景にある中国文化をも併せて中国から移入しようとしていた。例えば、茶碗を輸入する背景には茶文化の受容があり、儒教礼器輸入の背景には儒教の受容があったのである。ただ単に器物を輸入するだけでなく、その器物どのように使用するのかといった、文化的背景までも併せて日本に輸入し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

同時代の西アジアの中国陶磁の受容は、こうした日本の受容とは異なり、その器物の背景にある中国文化は興味の対象ではなく、美しくかつ堅牢で完成度の高い器物としての興味を基とした輸入であった。つまり中国でどのように使われていたかは問題ではなく、彼らがどのように使えるかという観点で輸入されたのである。そのため、中国や日本で茶道具として珍重された建盞は、西アジアにはほとんど輸出された痕跡がなく、彼らにとっては不用品な器物として扱われた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基本的には日本人の中国文化への憧憬意識と寧波の地理的要因が新安沈船の多彩な陶磁組成を成立させたと考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ある。一方、建盞や定窯白瓷、龍泉窯の砧青瓷など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古物の陶磁器からは、日本人の中国文化に対する独特の受容のあり方をも知ることができる。

中国では既に廃れ始めている一時代前の茶文化や茶道具が日本では引き続き流行していて、そうした古い茶器を意識的に買い集めたり、日本人が特にあこがれた宋時代の中国陶磁を代表

する龍泉窯の砧青瓷や定窯白瓷などの古物を求める意識などが窺い知れるのである。つまり、当時の日本人は同時代の中国文化へ憧れると同時に、自分たちが親しんできた一時代前の中国文化に対する憧れを強く抱き、複層的に中国文化および器物を受容したことが新安沈船の陶瓷器組成から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新安沈船で発見された陶瓷器は、当時の日中交流の精神的な背景までをも知ることができる稀有な研究資料と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